

김용익 개인전

December, 2016 | 편집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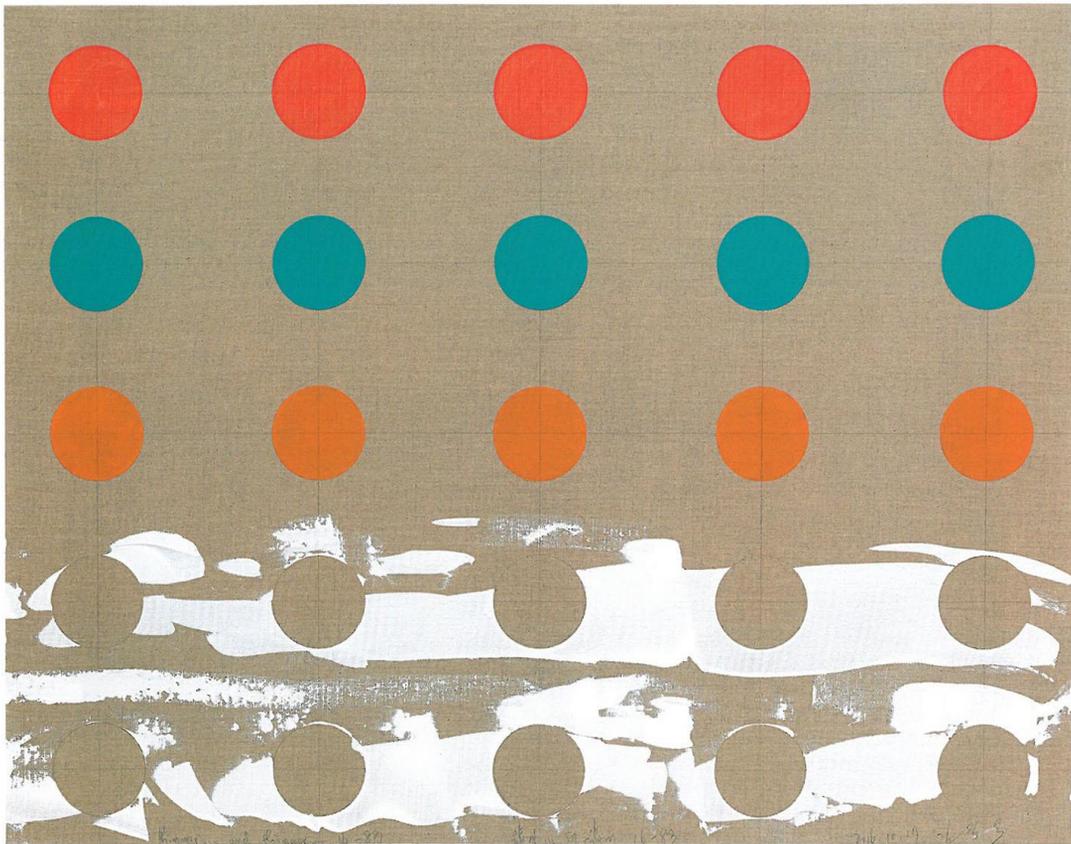
page 1 of 2

Preview Exhibition 이달의 전시소개 5

김용익 개인전

2016년 11월 22일 - 12월 30일

국제갤러리 2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격동 59-1 T. 02-735-84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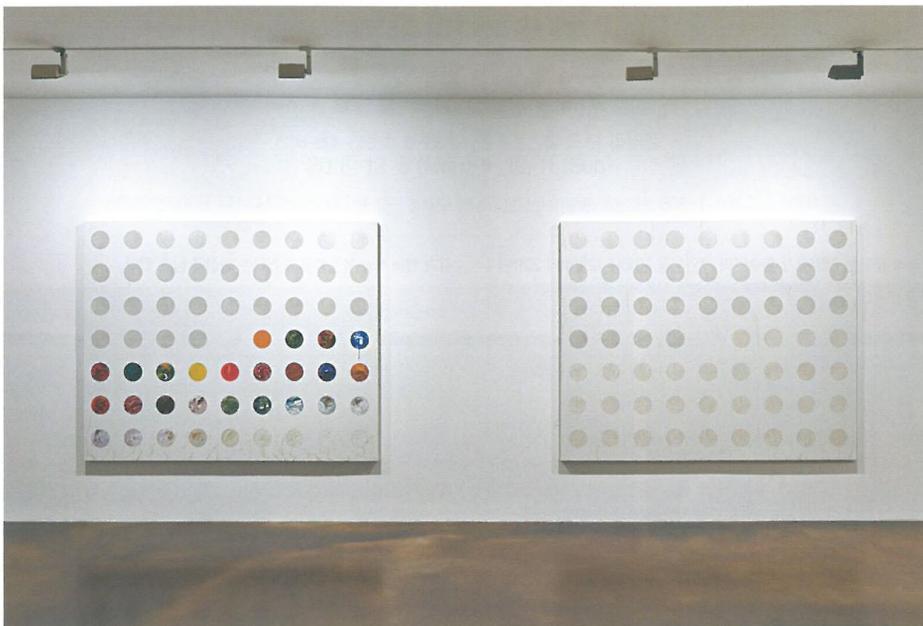


▲ ik\_Thinner...and thinner...#16-83

"이제는 크리에이팅(Creating)으로서의 으로서의 예술이 아니라 편집(editing)으로서의 예술이 요구되는 시대이다. 더 나아가 '성장-창작'의 시대는 시대는 저물었고 이제는 '수장(收藏)-편집'의 시대라고 할 수 있다. 나는 기존의 '모던적 주제'에서 '해체적 주제'로 나아가며, 더 이상 새로운 작품을 만들지 않고 기존의 작업을 작업을 재해석, 재구성, 재전유(Re-appropriation)해서 내 놓을 것이다."

\_ 글 김용익

이달의 전시소개 \_ 김용익



▲ 설치전경

국제갤러리는 금년 마지막 전시로 김용익의 개인전을 11월 22일부터 12월 30일까지 2관(K2)에서 개최한다. 국제갤러리는 한국의 현대미술사에서 독창적인 행보를 구축한 작가들을 동시대 관점을 통해 본격적으로 재조명해왔다.

그 일환으로 이번 김용익의 개인전은 1970년대 모더니즘으로부터 80, 90년대의 개념미술, 민중미술, 그리고 공공미술에 이르는 한국미술의 현대사를 통해 실존적인 고민을 다루어온 그의 최근 2년간의 신작 30여 점을 선보이며, 나아가 단색화 이후 세대의 실천적 미술과 경향을 살펴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김용익 개인전의 주요 참여 작품들은 2015년부터 2016년에 제작된 평면작업으로서 〈모더니즘의 목시록〉, 〈거짓말의 "여운 속에서"〉, 〈얕게... 더 얕게...〉, 〈20년이 지난 후〉, 그리고 〈유토피아〉에 이르는 다섯여 가지의 연작으로 구성되어있다. 이 대표작들은 과거의 스케치 혹은 판화작업들을 캔버스에 옮긴 후 이를 재편집 및 재구성(editing)한 작품으로서 그가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탐구해온 '땡땡이' 시리즈를 계승하고 있다.

1990년대 초 태동한 김용익의 '땡땡이' 시리즈 회화는 가장 단순하면서

도 기하학적으로 완벽한 도식이라 여겨지는 원형의 반복되는 도상을 기반으로 작가가 새내린 생각의 파편, 고적임, 먼지까지도 작업의 일부로 포용한 평면 작업이다. 이는 지난 모더니즘 회화의 미학적인 추구에 대한 작가의 비판적인 생각을 은유하며, 동시에 사회적 주제에 대한 사유의 흔적을 보여준다. 특별히 이번에 소개되는 신작은 밝은 색조의 반복적이고 경쾌한 리듬을 특징으로 김용익의 개인적 서사의 지난한 궤적을 지나 보다 희망적인 의미로 전유한다.

먼저 〈모더니즘의 목시록〉은 모더니즘 회화를 전복시킴으로써 모더니즘의 종말을 보여주겠다는 다소 거창한 의미로 붙여진 제목이다. '땡땡이' 작품의 이미지는 그리드(grid)에 뿌리를 둔 모더니즘의 상징적 도상과 흡사하지만 작가는 캔버스 위에 구멍을 뚫거나 물감 혹은 식물의 액즙을 발라 순수한 모던적 이미지의 발현을 방해한다. 이렇게 매끈한 무결점의 모더니즘 회화에 대한 일련의 제스처는 작가의 비판적 서사를 보여준다.

〈거짓말의 "여운 속에서"〉는 김용익이 근래 다시 재편집을 진행했던 1990년대 '땡땡이' 연작의 소화를 드러낸다. 여기에는 과거 작품의 '여운'을 회고해보는 한편 1990년대 작업에서 볼 수 없었던 '또 다른 무엇'에 대한 추구가 반어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_ 글 편집부